

데이비드 L. 매튜슨 박사, 신약 신학, 24 회차 , 성령, 1부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성령, 1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지배적인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일 것입니다. 이는 예수가 두 번째 아담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부활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으로, 죄를 가져온 첫 번째 아담의 효과를 뒤집기 위해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는 두 번째 아담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부활은 예수를 두 번째 아담으로 지정하거나 증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또한 이스라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빠와 살이 오고 영이 생명을 주는 부활로 보여지는 에스겔 3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부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그와 합류하여 이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 37장에 비추어 볼 때 부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자신의 부활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활을 다른 주제 대부분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미 있지만 아직은 아닌 긴장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활은 이미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에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5장과

골로새서 2장에 따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와 신약의 다른 본문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구원의 새 시대의 삶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완성된 부활에 대한 기대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미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발견하는 언어에서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났다, 예수의 부활은 수확 이미지를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의 첫 열매입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다른 경우에 다른 찬송가에서 바울은 말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라는 생각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앞으로 올 더 많은 것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바울이 부활에 대해 논의하는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 절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잠든 자들 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첫 열매라는 언어는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이 더 많은 것의 시작이자 선불 또는 기대임을 암시합니다.

예수 자신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예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뜻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계획의 일부입니다. 새 시대의 삶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에서 이미 밝혀졌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육체적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아직 하나님 백성의 육체적 부활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가 계시록 20장과 4~6장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20장 4~6절에서 무엇을 이해하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해 참수당한 자들이 이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지금은 살아 계시지만, 그것은 앞으로 올 더 많은 것에 대한 기대와 보장이 됩니다.

그것은 역사의 완성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의 백성이 부활하는 미래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실마리를 모아 예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상기시켜 요약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패배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의 부활이 필요하며, 죽음이 궁극적으로 패배하려면 우리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자신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 존재가 지상의 것이라는 보장이자 증명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해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기본적인 형태로는 사실이지만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특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다가올 더 많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백성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미래 존재에 대한 보장이자 증명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물리적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변형된 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새로운 창조물 안에서 존재하기에 적합하고 합당한 몸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지상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저와 같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육체적 몸이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 희망이 새로운 몸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미래의 부활된 몸을 본떠 그에 의존하는 육체적 부활의 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이 삶의 끝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삶과 똑같이 육체적이고 육체적인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NT 라이트는 사후의 삶이 아니라 사후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그의 백성을 위한 그의 계획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물리적 창조물에서 물리적인 몸으로 물리적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 그것의 성취는 그리스도 자신의 육체적 부활이며, 그것은 또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이제, 제가 넘어가고 싶은 다음 주제는 성령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논의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우리 대부분에게, 적어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면, 성령은 종종 우리의 생각 속에서 덜 중요한 위치로 밀려나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중요한 위치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학 서적이거나 심지어 체계 신학 서적을 살펴보면 성령에 할애된 공간의 양이 보통 하나님과 그의 창조 활동과 그의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할애된

공간의 양보다 적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아마 그것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지만, 동시에 성령에 대한 논의를 덜 중요한 위치로 밀어내는 것이나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추가 사항이나 우리의 신학을 완성하거나 삼위일체의 세 인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덧붙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통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신약성경으로 제한하고, 성령을 기독교 또는 교회 현상으로 봅니다. 대신, 저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과 구속의 역사적 계획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위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은 단지 신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 구원 계획의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성령의 기능과 역할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주제가 신약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복음서부터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고, 이어서 바울 문헌에서 성령의 역할을 고려한 다음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종종 요한계시록을 성령에 대해 가르쳐 주는 책과 연관시키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아마도 창조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도 능력도 없지만,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창조에 관여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을 발견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했습니다.

어둠이 깊은 곳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행위의 맥락에서 영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을 넘기면 시편 33장 6절이 제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다. 그가 입의 숨결이나 영으로 모시는 별. 시편 104편 30절.

시편 104편 30절. 당신이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은 땅의 표면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원래의 창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맥락에서 영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창조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사물들이 창조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미 존재한다는 언급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령이 신약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성령이 이미 그의 백성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립합니다.

민수기 11장 26-29절에서 우리는 예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여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9장과 20절도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고찰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19절을 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맥락입니다. 당신의 큰 자비로 인해 당신은 낮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데 실패하지 아니하였고, 밤에 불기둥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당신의 선한 영을 주셨고, 당신은 당신의 입에서 만나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를 헤매던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언급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이사야 63장 9절의 시작 부분에서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63장 9

절, 7절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는 주님의 자비와 그분이 찬양받을 만한 행위에 대해 말하고, 그런 다음 저자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 속에서, 그도 또한 고난을 당하고, 그의 임재의 천사가 그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는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들어올려, 옛날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을 안고 다니셨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했고, 그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인용하고 인용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서서 그들의 원수가 되었고, 스스로 그들과 싸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11절 후반부에서 그의 백성은 옛날, 모세와 그의 백성이 바다를 건너 그의 양 떼의 목자와 함께 인도한 그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그 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지탱하고 구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예언적 본문에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는 일의 일부로서 성령의 새로운 임재에 대한 약속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러한 새 언약의 본문을 여러 번 읽었지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가져오는 것과 관련된 성령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된 성령의 맥락에서 성령의 새로운 임재,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사실, 정경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2장과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14를 읽어볼게요. 요새는 버려질 거예요. 시끄러운 도시는 버려질 거예요.

성채와 망루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당나귀의 기쁨은 성령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양 떼의 목초지가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언어가 사도행전에서 인용됩니다.

사막은 비옥한 밭이 되고, 비옥한 밭은 숲처럼 보인다. 성령을 부어 새 창조를 시작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새 시대를 시작한다.

이사야 44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목마른 땅에 물을 붓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붓고,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복을 부어주리니, 풀과 같이 돌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 흥미롭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부어주시는 것과 평행을 이루며, 이제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을 부어주신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새 언약의 맥락에서 고려했던 본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겠다.

나는 네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나는 네 속에 내 영을 두고 네가 내 율례를 따르고 내 율법을 지키는 데 주의하도록 움직일 것이다: 37장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정착시키리라 그러면 내가 주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회복의 날의 약속이 있었느니라.

새로운 창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때. 구원의 모든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든 용어는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적용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나중에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그 후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줄 미래의 날의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너희 아들딸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나의 종들도, 남자와 여자도. 나는 그 날에 내 영을 부어주고, 하늘과 땅에 이적을 보이리라. 피와 불과 연기의 물결이로다.

그래서 예언적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실 날을 예상합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영이 새롭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언약의 수립의 일부로서.

우리는 또한 오실 메시아와 관련하여 성령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 또는 오실 메시아나 그분의 종에게 그분의 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 시작. 섬 들어 , 내 앞에서 잠잠하라 . 민족들이 힘을 새롭게 하라. 앞으로 나와서 말하라.

심판의 장소에서 함께 만나자. 누가 선동했는가? 어머, 미안합니다. 41 입니다. 42 내가 불드는 내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가 택한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고, 그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외치거나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더 많은 구절을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세요. 그분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실 사람으로. 그리고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도.

61장. 주권자 주님의 영이 말씀하신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보내어 상한 마음을 고치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어둠에서 풀려남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께 대한 복수의 날을 선포하여 애통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

그래서 주권자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신 글입니다. 흥미롭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에제키엘에 대한 나머지 책을 읽어보시면,

에스겔의 환상 여행은 성령의 힘에 기인합니다. 성령은 그를 여러 장소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언적 연설, 예언적 계시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 창조에서 활동하셨고, 그는 새 창조를 가져오는 데도 활동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서 활동하셨지만, 그들이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롭고 신선한 방식으로 성령을 부어 새 언약을 세우실 때 성령이 다시 활동하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신약은 단순히 창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고 창조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현존을 확립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며, 그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이것의 성취이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과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의 백성과 함께 그의 임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의 포괄적인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토마스 슈라이너는 그의 신약 신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의 성령, 그가 성령을 지칭하는 성령, 성령은 새 시대가 도래했고 새 창조가 현실이 되었다는 종말론적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를 새롭게 하는 맥락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예상하는 모든 예언적 텍스트, 새로워진 창조, 새로워진 언약 관계,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신약 전체에 걸쳐 성령은 종말론적 새 시대가 이미 도래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실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복음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의 세례는 마태복음 3장과 16장에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에게 내려와서, 예수에게 능력을 주거나 예수의 사역을 준비시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한 것은 아마도 새로운 창조물이 도착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비둘기와 동일시되는 이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야기에서 창조의 갱신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비둘기가 예수님에게 내려오면서, 비둘기의 형상을 한 성령은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에게 내려오신 성령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역을 위해 장비되고 능력을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선포되고 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는 또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이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는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그는 종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여, 종이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 말하는 본문을 그 자신이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과 같은 본문 도 있습니다 . 마태복음 12장과 17절부터 21절. 1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알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이를 알고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고,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갔으며,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여기서 예수님, 마태는 이사야 42장을 인용합니다. 여기 내가 택한 종이 있다.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종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고, 그는 민족들에게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서 예수님은 이제 영을 받으신다.

성령이 예수에게 부어져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부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주제는 예수께서 성령의 세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맥락에서 세례자 요한. 요한은 내가 회개를 위해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강력한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을 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심으로써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구약성경 예언서에 약속된 구원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고 약속하신 예수께서는 구약성경 예언서의 성취의

시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령의 또 다른 흥미로운 임무 또는 기능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지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9, 20절에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당신을 체포할 때, 당신이 물리선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전파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 20절, 그들이 당신을 체포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당신에게 무엇을 말할지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말하는 당신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기능합니다. 즉, 사람들이 말하고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옛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제 생각에는 구약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성령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루크를 복음서 또는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루크 전체에 성령에 대한 수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루크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와 평행한 곳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더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기름을 부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우리는 누가가 예수님이 이사야 62장을 인용한 것을 발견하는데, 이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언급한 종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펴서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니라. 그는 나를 보내어 갠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하게 하며,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65장의 종의 역할을 수행하셨고, 그러므로 성령이 지금 그에게 임하여 종의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직전, 유혹 이야기에서, 예수의 유혹 후에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4장과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혹을 받으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주제는 성령이 예언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와 예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이 말하고, 노래하고, 예언적으로 말하거나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1장은 40절로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고 아기가 그녀의 태로 뛰어들었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여자들 중에 복이 있고,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낳을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에 노래를 부릅니다 . 하지만 1장 61절에서 69절은 사가랴 노래인데,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찬송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께서 그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사가랴의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을 하도록 하는 분이며, 이는 구원의 새 시대가 성취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요엘 2장은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고 성령이 구원의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징조로 예언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가가 1장에서 제안하는 바는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 직전인데도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노래하고 말하도록 영감을 주는 활동은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고 곧 도래할 것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 번 발견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을 성령을 분배하는 분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히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만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주시거나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구약의 예언적 본문의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사도행전 2장을 예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요엘 2장의 성취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조금 후에 2장에서 일어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들은 구약성경 본문, 이사야와 에스겔, 그리고 요엘 2장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누가복음 1장에서 예언하고 노래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종으로서 예수 자신의 사역에 능력을 주심으로써.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이미 우리는 루가의 표적을 봅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된 새 구원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성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참된 예배는 성전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또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예수에 대해 언급하는데,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의 세례 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온 것에 대해 읽습니다. 요한도 그 사건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2절.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입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으로 지칭합니다(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을 사랑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에게 성령을 주어 그의 백성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새 창조와 새 탄생 또는 새 언약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절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마주하고 토론하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3절에서 그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늙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느니라. 내가 전에 제안했듯이,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물과 영으로 부어 주시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읽는 예제키엘 36장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과 새 언약의 맥락에서 에스겔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두리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나는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를 움직여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게 하며 내 법도를 지키는 데 주의하게 할 것이다. 백업으로 25절을 읽어야 할 것 같다. 나는 너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 너희를 깨끗이 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언급은 사람들에게 뿌리고 물로 깨끗이 씻고 성령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암시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약속된 회복, 약속된 새 언약 구원, 그리고 약속된 물로 깨끗이 씻고 성령을 부어주는 일을 가져오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에스겔서 36절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기념하시는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습니다. 이 축제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날인 초막절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내게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물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는 그것을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적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그는 이 말로 그를 믿는 자들이 나중에 받게 될 영을 의미했습니다. 그때까지 영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몇 가지를 주목하세요. 첫 번째는 구약성경에서 성령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모든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적 본문에서 자신의 영을 부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36장에서 다시 물과 영의 연결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초막절의 물이 성령과 동일시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는 물이 성령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초막절의 성취라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의 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요한이 말했듯이, 나중에 그를 믿을 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성령이 문자적으로 파라클레토스(*parakletos*) 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 이 단어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나오는 그리스어입니다. 성령의 역할에 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온갖 논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더 법적인 맥락에서 성령이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의 옹호자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때는 도우미나 상담가라는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다른 번역, 영어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헬퍼, 상담가, 옹호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인 파라클레테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어떤 경우든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의 대용품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보혜사로서 예수가 없는 사이에 오신다. 예수가 떠나실 때, 예수가 지상을 떠난 후에 성령이 오신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4:16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서 읽고, 뒤로 돌아가서 15를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NIV는 보혜사를 도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도록 번역한 것을 주목하라.

그것이 진리의 영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성령, 진리의 영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그의 추종자들에게 주실 변호자 또는 보혜사 또는 도우미입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보혜사나 다른 변호자라고 불린다는 사실은 그 영이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가 했던 일을 하여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의 현존을 그의 백성에게 중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16장과 13절은 같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리라. 그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듣는 것만 말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나에게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이 지금 가르치고, 지시하고, 계시하고, 그의 제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그의 백성에게 부여하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다시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령의 정화와 부어주심은 구약의 성취로 새 언약 구원을 확립하는 일부입니다.

사도행전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원래 같은 저자가 쓴 두 권짜리 작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처럼,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복음은 예언과 연설과 관련이 있고, 아마도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요엘 2장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구약의 성취로서 예언과 연설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는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모인 곳이 흔들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매우 흔한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 궁극적으로 요엘 2장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부어주심은 말과 예언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7~30절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몇몇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의 한 선지자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 성령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극심한 기근이 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크는 모든 곳에서 성령이 사람들이 예언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는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말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인되거나 입증된 구원의 새 시대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발견되므로 성령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 1

장 8절부터 시작하여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팝을 받을 때, 그러나, 그러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면 당신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J와 요엘 2장, 특히 이사야 본문의 성취에서 직접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의 주제를 살펴보면 이사야의 새로운 출애굽기가 사도행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4장과 42장에서 성령이 요엘 2장과 같은 본문에서 부어지는 것에 대한 수많은 언급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의 혀로 사람들에게 임할 때 성령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해줍니다. 4절에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것은 사도행전 8장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약속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취되고 성령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에 그 행위가 끝나갈 무렵,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중간쯤에서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군중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을 인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당화합니다.

이제 이것은 선지자 요엘이 말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엘 2장,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요엘 2장을 인용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구약의 예언적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나머지 사도행전에서 여러 중요한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10장에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서, 19장에서 에베소 도시에서 오순절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한다면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대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면서 사도행전 8장도 땅 끝까지 전파되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리우스가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서 더 나아가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오순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예언하고 방언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성령은 항상 사람들에게 부어지며, 이는 이 이방인이 아닌 이들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진다는 약속, 구원의 새 시대가 이제 그들에게도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오순절 유형의 경험을 겪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이 그것이 항상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모델을 반드시 제공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부어지고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것이 항상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고, 때로는 즉시 성령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저자의 의도는 성령이 항상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점점 더 작은 유대인 영토에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인에서 시작하여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들만의 오순절 경험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부어진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사도행전에서 성령은 루가 복음과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구원의 새 시대가 밝았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취로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는 그들에게 봉사할 능력을 주고, 말하고 예언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주로, 성령은 또한 성령을 부어주는 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사실 은 그들 역시 구약에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증거이자 보장입니다. 다음 토론에서 다음 세션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주제에 대한 고려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문헌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른 오래된 신약성서 본문으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강의 시리즈에서 데이브 매튜슨 박사의 것입니다. 이것은 세션 24, 성령, 1부입니다.